

『장학보』 소재 소설 연구

임기현*

|| 차례 ||

- I. 머리말
- II. 『장학보』의 성격과 체제
- III. 소설 부문의 응모와 심사
- IV. 『장학보』 소재 소설의 주제와 시공간
- V. 『장학보』 소재 소설의 구조와 언어
- VI. 맺음말

【 】

계몽기인 1908년에 간행된 잡지 『장학보』는 최초로 소설 현상모집을 실시했다는 선행적 평가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장학보』는 당시 실력양성론자들의 주요 화두였던 ‘우승열패’ 논리를 현상모집의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 작품에는 고소설적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전지적 작가의 논평적 개입, ~더러체의 편재화, 대화 인용 지표인 ‘왈’의 사용, 꿈(우화)의 활용, 과도한 요약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작가층이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문학 양식의 학습에서는 고전소설에 보다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직간접적으로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대상을 반영한 어휘나 문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묘사의 확대, 지문과 대화의 구분, 진일보한 부호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순 국문체의 고집은 순 우리말에 눈뜨게 하였고, 그만큼 묘사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장학보』는 현상모집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치열한 고민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계몽기, 장학보, 현상모집, 서술자의 논평, 구어체, 묘사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초빙교수

I. 머리말

근대계몽기에 발표된 서사문학을 계몽기소설, 혹은 신소설로 불러왔다. 특히 계몽기소설의 남상이 되는 작품들은 을사늑약에서 1910년 강제병합 시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일제는 을사늑약(1905.11)과 한일신협약(1907.7) 등의 체결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어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갔다. 통감부는 한일신협약 체결과 동시에 창작 활동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광무신문지법’을 공포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이인직을 비롯한 신소설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친일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계몽의 논리는 정신사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발표된 좀 더 많은 서사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른바 ‘보호국화’ 이후 1910년의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대한자강회(1906), 기호흥학회(1908)와 같은 학회가 연이어 생겨났고, 『조양보』(1906)에서 『대한흥학보』(1909)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지가 발간되어, 반식민지 상황에서 계몽운동으로 응전력을 키워나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잡지들은 모두 길이가 짧은 서사작품을 실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1908년 1월에 창간된 『장학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단편소설 현상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¹⁾ 최초로 『장학보』 잡지에 주목한 이는 송민호로, 이 잡지가 응모제를 두고, 심사를 거쳐 입선 작품을 동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지적한다.²⁾ 그리고 1950년대 신소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초기 연

1)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1』, 문학과지성사, 2012, pp.138-139.

2) 송민호,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p.22.

구자 전광용에 이어 1970년대 이재선,³⁾ 1980년대 주종연⁴⁾ 등을 비롯한 계몽기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단형서사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계몽기 각 매체에 실린 단형서사 작품은 다시금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장학보』 매체와 그 매체에 실린 작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김영민은 『장학보』에서 시작된 근대 잡지의 독자 투고 현상모집제도가 『청춘』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선문단』과 『개벽』 등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문인 배출의 주요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⁵⁾ 이러한 논의는 독자의 창작 참여 과정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져 『장학보』가 “근대 단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⁶⁾ 의미 부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학보』는 최초의 현상모집으로 중요성을 갖는다는 선형적 평가에 비해, 이 잡지의 성격과 실려 있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게 된 배경, 특정하지 못한 이 잡지에 대한 정간에 대한 논의, 현상 제도의 핵심인 응모와 심사, 무엇보다 기존의 선별적 작품 논의를 지양하고, 전체 13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장학보』 소재 작품들이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소설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4) 주종연, 『한국근대단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1.

5)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2011, p.112.

6) 정영진, 「현상 단편소설 모집의 기원 장학보」, 『한국학연구』 42, 2016, pp.89-117.

II. 『장학보』의 성격과 체제

『장학보』는 1908년 1월 20일 월간지 형태로 발간을 시작했다. ‘장학보(獎學報)’는 그 제명에서도 드러나듯 면학을 강조하고자 발행한 교육 분야 잡지로,⁷⁾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한 국력증진에 있었다.⁸⁾ 보호국화 상황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지 않은 실력양성운동 계열의 자강론자들은 교육과 실업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⁹⁾ 『장학보』는 이들이 내걸었던 핵심 가치 중에서 ‘교육’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박태서에 의해 창간되었다.

창간호의 첫 페이지에는 사장 박태서의 ‘발행취지서’가 실려 있어 발행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상모집을 실시한 이유도 드러난다.

學也者는 以之博識하며 以之廣智하야 用之身用之家하야 用之邦國而之天下也라 雖然이나 學非勸獎이면 無以推進이오 獎非布報면 莫知優劣이라 彼歐美列強의 文明富強이 皆由於勸獎學問이 擇用人材를 必取於其中 則其淺學薄識이 如深井短繩이라 烏能汲引이리오.¹⁰⁾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넓게 하여, 이로써 자신의 몸과 가족, 국가와 천하를 위해 활용되니, 학문이 권장되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포상과 그 알림이 장려되지 않으면 그 우열을 알아볼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이다. 또, 구미의 문명과

7) 잡보, 『해조신문』, 1908.3.31., p.2.

8) 蓋夫學力不進이 卽國力不振이라 豈不寒心哉아 畧畧同志로 共設此報호고 名之曰 獎學月報라호니 學界俊彦은 此月報로 認爲機關하야 互相興起어다(『대한매일신보』, 1907.12.18., p.3.)

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1992, p.17.

10) 박태서, 발행취지서, 『장학보』, 1908.1, p.1.

부강이 다 학문을 권장함에 있고, 인재를 선택할 때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했다. 첨언하기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등용하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학보』가 굳이 상금제를 활용, 입선작을 내는 수준을 넘어, 작품의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등수까지 매기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 잡지는 실력양성 계열 지식인들의 시대적 인식 논리인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원리를 잡지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장학보』는 총 70쪽 내외 분량의 잡지였다. 그 응모 분야는 論說, 小說, 詞藻, 作文, 歷史, 地理, 算術, 才談, 謎語, 國文, 外國語 등 12개 과목이었고, 전 영역을 통틀어 234명 정도의 (준)입격자를 배출하고 영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선자의 작품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응모자들은 투고 시에 다양한 응모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장학보』 1월호 말미(pp.59-67)에 ‘장학보 발행규칙’으로 총 14장 78조항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소설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주제와 제목이 정해졌고, 산술 영역의 경우는 출제된 문제에 공식과 문제풀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문이 주가 되었다. 따라서 『장학보』는 지식인 청년들에게 우리 국어 정착 시기에 언문일치의 사용을 시험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매호 잡지 말미의 사고(社告)를 통해 우리는 12개 영역에서 매월 300명 정도가 응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선 작품에는 상금도 주어졌는데, 소설의 경우, 1등에게는 10환, 2등에게는 5환, 3등에게는 3환이 주어졌다. 『장학보』 1년치 구독료가 2환으로 되어 있는

11) 박태서의 장학취지서에 이어 『장학보』를 이끈 2인자였던 이보상의 社說, 『권학설』도 실려 있다. 이보상은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이었다.(정영진 앞글, p.98.) 이 글에서도 “무릇 20세기는 生存競爭 卽야 強食弱肉之時代”라는 말이 나온다.(『장학보』, 1908.1., p.1.)

것을 보면 상금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²⁾

장학월보사는 190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잡지 발행과 현상모집 사실을 알렸고, 1908년 1월 20일 첫 창간호를 냈다. 『장학보』는 매달 20일자로 발행했는데, 제5호(1908.5)를 끝으로 더 이상 책을 발견할 수 없다. 이 5월호에 중간과 관련된 정보가 실려 있지 않아 중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왔다. 계속해서 6월호를 낼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6월 7일자에 6월호에 실릴, 제6회 합격자 명단, 또, 7월호 응모자가 수행해야 할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날 기사의 말미에 붙어 있는 ‘장학사’ 공고에서 발간 중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장학보』는 장학월보사가 직접 관여하는 잡지에서 장학월보사가 학생들과의 친목을 위해 조직한 학생연합 친목회의 기관지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된다.¹³⁾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장학월보사가 잡지 운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잡지 발간도 유야무야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학보』의 공식적인 폐간 일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잡지의 마지막 발행 시점인 1908년 5월보다 한참이나 지난, 1909년 9월 17일자로 발행허가가 공식적으로 취소되고 있음을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관보에서는 “內部는 신고 없이 휴간 규정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신문법에 의거하여 ‘장학보’의 발행허가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다.¹⁴⁾ 당시 관련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휴간을 2개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발행 정지 신고를 하면 1개년까지 정간할 수 있도록 하고

12) 「장학월보 광고」, 『대한매일신보』, 1907.12.18.

13) “獎學社 本月報를 學生聯合親睦會의 委托을 受호와 學生聯合親睦會機關獎學報라 稱호를 더이우고 會員의게는 特別減價호야 壹冊拾五錢으로 定호야사오니 照亮爲 要”.(「장학사 제6회 응모합격방」, 『대한매일신보』, 1908.6.7.)

14) 『관보』, 제4485호, 1909.9.21.

있다. 대신, 약속한 정간 기간을 넘겨 2개월이 지나도록 발간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¹⁵⁾ 이를 종합해보면 『장학보』는 1908년 5월까지 발행을 계속하다가, 2개월을 넘기지 않은 1908년 7월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1년 정간 상태에 들어갔고, 다시 2개월을 넘긴 1909년 9월, 내부에 의해 공식 폐간 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소설 부문의 응모와 심사

『장학보』는 발행 5개월(1908.1~5) 동안 13명의 입선자와 16편의 입선작을 선발했으며 이 중에 13편을 게재했고, 3편은 게재불가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응모자의 어떤 작품이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심사)	등수	입선자(나이)	제목	출전	자수 /원고량
1월호 (이유형)	3등	노인규(?)	農家子	pp.23~25	683/4.5
2월호 (장지연)	1등	심상직(21세)	晚悟	pp.29~30.	1108/7.3
	2등	육정수(23세)	血의 影	pp.30~32.	998/7.2
	3등	이규창(20세)	英雄의 魂	pp.32~34.	994/6.6
	등외	민천식(18세)	蠅笑蜜蜂	pp.34.~35.	1103/7.1
3월호 (남궁억)	2등	심우섭(19세)	枕上有覺	평 p.23.	게재불가
	3등	유병휘(25세)	教子設	pp.24~25.	1058/6.3
	등외	차이석(28세)	夢中夢	평 p.25.	게재불가
	등외	이원백(20세)	見松悔悟	pp.26~27.	958/6.2

15) 『관보』, 제3829호, 1907. 7. 27.

4월호 (이유형)	2등	신태원(28세)	家道整齊	평 p.23.	계재불가
	3등	원용진(24세)	婦人勸學	pp.23~25.	1159/7.5
	등외	육정수(23세)	蝮蠃의 子	pp.25~27.	838/6.8
	등외	이승환(25세)	夢의 刑	pp.27~28.	1096/7.1
5월호 (자체 심사)	2등	육정수(23세)	水輪의 聲	pp.19~21.	1088/7.7
	3등	심우섭(19세)	夢覺	pp.21~23.	1461/9.5
	등외	이원성(?)	決斷巖	pp.23~24.	985/6.6.

계재된 작품 중에서 1등은 단 1편(심상직, 「만오」)뿐이다. 그리고 2등이 두 편이다. 3등은 5편, 나머지는 등외로 드러난다. 13편의 계제작 중에는 육정수의 것이 세 편이나 되는데, 육정수는 2등 2편, 등외가 1편으로, 2등은 모두 그가 차지하고 있다. 등외 작품까지 포함하여 계재된 총 13편 중 육정수의 세 편에 이어, 심훈의 만형으로 『매일신보』에 「형제」(1914)·「산중화」(1917)와 같은 번안소설을 남겼고,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던 심우섭(1890~1946)이 2등과 3등 두 편을 차지했다. 따라서 『장학보』 출신 문인으로는 『송뢰금』의 작가 육정수¹⁶⁾와 심우섭¹⁷⁾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투고자들의 면면은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작품을 실을 때 입선자의 출신 지역과 나이 등 최소한의 정보를 밝혀 놓아, 그 대략적인 면모는 파악할 수 있다. 중복 입선을 제외하면 총 13명이 등장하는데, 「농가자」의 저자 노인규는 평양일어학교 3학년, 「만오」를 쓴 심상직은 21세로 법관양성소 2년생, 「혈의 영」, 「과라의 자」, 「수륜의

16) 호를 초우당주인(蕉雨堂主人)으로 썼던 육정수는 『장학보』에 실린 세 편의 단형서사를 거쳐 1908년 10월 『송뢰금』을 출간했다. 이후 1915년 3월 잡지 『공도』에 「참맛」과 1919년 2월 『매일신보』에 번역소설 『우리혼』을 연재한 것을 끝으로 문단과 멀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경덕, 「초우당주인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Vol.41, 2011, 임기현, 「근대계몽기 작가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Vol.51, 2015. 참조.

17) 심우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상권, 「『직녀성』 연구: 『직녀성』의 가족사 소설의 성격」, 『우리말 글』, Vol.39. 2007. 참조.

성』 등 세 편을 쓴 육정수는 23세로 서울 종교 사람, 『영웅의 혼』을 쓴 이규창은 20세로 고등학교 3학년생, 『승소밀봉』을 쓴 민천식은 18세로 휘문의숙 중학생, 『침상유각』과 『몽각』을 쓴 심우섭은 19세로 휘문의숙 중학 2년생, 『교자설』을 쓴 유병휘는 25세로 가평 사람, 『몽중몽』을 쓴 차이석은 28세로 평양야소교학교 학생, 『견송회오』를 쓴 이원백은 20세로 개성 사람, 『가도정제』를 쓴 신태원은 28세로 서울 사동 사람, 『부인권학』을 쓴 원용진은 24세로 서울 승문동 사람, 『몽의 형』을 쓴 이승환은 25세로 서울 종교 차곡 사람, 『결단암』을 쓴 이원성은 서울 이문동 사람으로 밝혀져 있다. 지역 소재가 밝혀진 입선자들 12명 중 9명이 모두 서울·경기권 출신이다. 서울의 휘문의숙 소속이 2명으로 3회나 입선하고 있다. 추가로 평양지역 학교에서 2명, 개성지역 인물이 1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주로 근대식 교육 기관이 소재했던 곳으로, 『장학보』의 독자층 역시 이곳에 몰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학보』는 응모인 자격으로 학생만 아니라 학문에 뜻을 둔 자는¹⁸⁾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따라서 13명의 입선자 중 학교 소속이 없는 육정수를 포함한 7명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일 개연성이 높다. 『장학보』에 응모할 때는 반드시 본사에서 제공한 응모지 양식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존안(存案)란이 있어, 학생의 경우 학교, 과, 학년까지를 쓰도록 했고,¹⁹⁾ 이는 발행규칙에서도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잡지명에만 주목하여 『장학보』의 소설관을 ‘학생들의 소설관’으로만 받아들이는

18) 本社趣旨는 一般學界를 獎勵함에 在함으로 學員外에 學業에 有志한 僉位와 既往 成就한 學問家시라도 勿論某科하고 應募規則에 小無拘碍함오니. (특별광고, 『대한매일신보』, 1908.1.9., p.3.)

19) 응모식, 『장학보』, 1908.1., p.69.

20) 校籍이 有한 자는 校籍欄 內에 校籍을 詳記함.(장학보 발행규칙, 제5장 39조, 『장학보』, 1908.1., p.62.)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연령이 누락된 2명을 제외하면, 입선자들 평균 나이는 22.6세인데,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신학문을 접한 세대가 아니라 1880년대 후반에 태어나 한학을 미리 접한 세대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장학보』는 당시 청년들의 소설 장르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

투고 시에는 원고량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창간 이전의 일간지 광고나 1월호에서 밝힌 규칙에서는 ‘1행 20자 30행 이상 50행’ 이내였다가, 5월호에 와서는 ‘1행 30자 30행 이상 50행 이내’로 1행 20자가 30자로 늘어나 있다. 이를 자수로 계산하면 600~1,000자에서 900~1,500자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0자 원고지 개념으로는 적게는 4매에서 많게는 10매 정도가 된다. 실제로 『장학보』에 실린 작품들을 확인해보면 가장 긴 분량은 심우섭의 「몽각」으로 1,461자(9.5매), 노인규의 「농가자」가 683자(4.5매)로 가장 짧다. 총 13편의 응모작품의 평균 자수는 1,040자로 띄어쓰기까지 감안하면 원고지 7매 정도 분량이 된다. 오늘날의 단편소설 분량보다 현저히 적고, 통상 20매 이내로 정의되는 콩트보다도 짧다. 투고규칙에서는 ‘소설’과 ‘단편’을 병기하여 쓰고 있는데, 단편소설의 분량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당시 『매일신보』도 독자 투고 작품을 원고지 7매 정도, 1917, 18년에 나온 『청춘』에서도 12매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10년대까지 신문이나 잡지는 단편소설의 길이를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²²⁾ 무엇보다 이 지나치게 적은 분량 제한은 『장학보』에 실린

21) 송민호, 『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80, p.22.

22)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1』, 문학과지성사, 2012, p.128.

서사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짓는 ‘죽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는 합격 여부와 그 등수 선정을 전문 심사자에게 맡겼다. 또, 그 판단을 존중하되 최종 게재 여부만큼은 편집진이 다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심사자는 이유형(1·4월호), 장지연(2월호), 남궁역(3월호)이었다. 『장학보』에서는 심사위원들을 당대 학계와 문화계의 저명인사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유형은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구한말 侍從을 지냈으며 한시에 능해 이승만과 교유한 인물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남궁역(1863~1936)은 교육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 장지연(1864~1821) 역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이었다. 이들이 소설에까지 조예가 깊었던 인물인지는 의문점이 든다.

게재된 작품은 13편 중에서 심사자의 평이 제시된 작품은 8편이다.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보자.

소재 (심사자)	저자	제목	평
제2호 (장지연)	심상직	晚悟	國文頗多違然製法得小說家手段 ²³⁾
	민천식	蠅笑蜜蜂	轉換甚妙設諭甚好宜置三等其於等分有限何 ²⁴⁾
제3호 (남궁역)	유병휘	教子設	稍爲合格而頭眉有欠小說體 ²⁵⁾
	이원백	見松悔悟	比則切矣有欠詞鋒 ²⁶⁾
제4호 (이유형)	원용진	婦人勸學	縱有子母之誤大得小說之體. ²⁷⁾
제5호 (자체)	육정수	水輪의 聲	語新體新可謂新人新手 ²⁸⁾
	심우섭	夢覺	一夢如此唯希再夢三夢 ²⁹⁾
	이원성	決斷巖	舉世猶豫獨先唱決亦一快丈夫 ³⁰⁾

23) 국문이 자못 어긋나나 소설 제작법에서 소설가의 수단을 얻었다.

24) 전환이 심히 묘하고 이야기의 비유가 심히 좋아 마땅히 3등에 위치하나 등급 구분이 유한하니 어떡하겠는가.

25) 그런대로 합격을 삼을 만하나 처음과 끝에 소설체로서 흠이 있다.

가장 빈번한 평가는 소설의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제작에서 소설가의 수단을 획득했다.” “비유가 뛰어나다”, 또 “말이 새롭고 문체가 뛰어나다”는 등의 호평이 있는가 하면, “처음과 끝에 소설체로서 흠이 있다”거나, “표현력에 날카로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자모 즉 국문의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두 건이나 된다. 이 지적은 게재불가 작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국문의 정착 과정이 지난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외부 심사 없이 편집진이 자체 심사한 5월호에서는 「몽각」이나 「결단암」에서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두 건이 된다.

그리고 게재불가가 된 3편의 작품은 3월호(남궁역 심사)에 2편, 4월호(이유형 심사)에 1편인데, 심사자의 평가 함께 잡지 편집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실려 있다. 남궁역은 심우섭의 「침상유각」에 대해 2등으로 평가하면서 “문필이 아름다움을 갖추었지만, 한글에서 주의를 더해야 한다(文筆俱佳 但子母反切 宜加注意)”라고 했다. 하지만 편집원들은 “평론은 이와 같으나 어의가 학술에 무관하기 때문에 게재치 않는다.”라고 했다. 역시 등외작 차이석의 「몽중몽」에 대해서도 남궁역은 “말이 많고 실수가 있고 거침이 있으나, 가공과 허구가 격하게 일어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語多迂濶而 架虛起激 此亦一道)”이라고 했다. 역시 편집자는 “어의가 학계에 무관하다”는 게재불가 사유를 밝히고 있다. 4월호의 「가도정제」의 경우, 표현력보다 작품의 의미를 중히 여겨(言微義重可爲鑑轍) 그 달의 최고인 2등을 주었으나, 편집진은 주제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아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³¹⁾

26) 비유는 적절하나 표현력(詞鋒)에 흠이 있다.

27) 비록 자모의 잘못이 크다 하나 소설의 문체를 얻었다.

28) 말이 새롭고 문체가 새로워 가히 신인의 새로운 수법이라고 부를만하다.

29) 하나의 꿈은 이처럼 오직 바란다. 제2, 제3의 꿈을.

30) 온 세상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혼자서 선창을 하니 역시 하나의 통 큰 장부일 것이다.

31) 語意가 學術에 無關이고 小說體格에 不습이며 支那 華陰縣은 尙有 大明 成化年間

편집자 평의 서두, “評論은 如是 訶나”에서 잘 드러나듯이 심사자와는 다른 편집자의 시선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남궁억은 소설의 허구적 요소 ‘架虛’ 즉 가공과 허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몇 글자의 한문 문장으로 된 단평이어서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 속에서도 소설에 대한 심사자들의 새로운 형식과 소설 문체에 대한 기대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IV. 『장학보』 소재 소설의 주제와 시공간

1. 소설의 주제와 제목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우선, 13편의 작품은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응모 시에 제목은 자유롭게 달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소재나 주제가 학술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³²⁾ 아내가, 선량하고 성실하지만 무식한 남편에게 학문을 권하여 상주목사를 만들었다는 「부인권학」, 노모 봉양으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빈가의 아들이 그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로 공부를 시작하여 학문가가 되었다는 「교자설」은 이미 그 표제어에서부터 주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 밖에 학문에서도 성실성이, 또 때를 놓치지 않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농가의 두 아들을 등장시킨 「농가자」, 미래를 대비하여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기 위해 부지런한 꿀벌과 게으른 파리를 등장시킨 「승소밀봉」,

氣習 故로 不載함.(여자가 학술에 무관하고 소설체로서 형식에 합당하지 않으며 중국 화음현은 오히려 대명 성화년간의 풍습이 있는 고로 신지 않음.)

32) 『장학보 발행규칙, 제1장 제14조』, 『장학보』, 1908.1, p.60.

평시에 학문을 게을리 했던 이들이 꿈속에서 그 대가를 치른 후 공부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몽각」과 「몽의 형」 역시 직접적으로 ‘권학’을 내세우고 있다. 「견송회오」 역시 주인공이 뜰 앞 괴석 위에 1척의 예쁜 소나무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자식 역시 완호물보다는 국가 동량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을 학문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학문을 다른 주제와 연계하여 제시한 경우로는, 「만오」가 있는데, 욕심을 주의하라는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던 만오라는 청년이 꿈에 물고기가 되어 향기로운 미끼의 유혹을 참지 못해 물었다가 물으로 끌려나와 배가 토막 날 순간 꿈에서 깨어나고, 이후로는 욕심을 경계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육정수의 「혈의 영」은 등장인물의 꿈속에서 만난 시위 군중들의 구호와 깃발 속에서 독립, 자유, 실업과 함께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역시 육정수의 「과라의 자」는 나나니벌이 배추애벌레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는 고사를 가져와 ‘주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총 13편 중 10편, 즉 80% 가까이 ‘교육’을 직간접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룬 것은 「영웅의 혼」, 「수룬의 성」, 「결단암」이다. 그중 「영웅의 혼」은 환상적인 서사를 활용하여 청수산 아래 두 형제 영웅이 때를 잘못 만나 죽었으나 늘 울결(鬱結)한 마음 때문에 영웅의 혼으로 부활하여 비스마르크와 같은 세계의 영웅을 낳으면서 떠돌다가 이제 조선으로 와서 영웅국을 건설하리라는 일종의 ‘영웅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룬의 성」은 물레방아 소리를 들은 두 청년이 물레방아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근면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단암」은 삼각산 백운대 등반을 소재로 위기의 시대일수록 용기와 결단력이 갖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재를 ‘학업’으로 제한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작품 주제가

‘권학’으로 편향된 점은 아쉽다. 교육을 소재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신교육, 여성교육’과 같은 예각화된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양반의 자손이 학문이 없으면 상사람 되고, 상사람의 자손도 학문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다”(『교자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교육이 계몽기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당대의식을 반영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한일병탄을 앞둔 불안한 시기를 감지하고, 영웅 출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거나(『영웅의 혼』), 어려울 때일수록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결단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론에 입각하여 2천만 민중이 나태를 깨고 때를 놓치지 말고 근면하자(『수륜의 성』)는 주제도 직간접으로 1908년의 반식민지 상황이라는 ‘당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무시간성 속에서 도식적으로 권선징악을 강조한 고소설의 주제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구현은 제목을 다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고전소설이 보여준 인물 중심의 ‘~전’의 방식, 즉 인명 표제의 편재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血의 影’과 같은 일본식 제목이 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婦人勸學’, ‘教子說’, ‘夢覺’, ‘夢의 刑’, ‘晚悟’, ‘見松悔悟’처럼 주제를 직접 압축해서 보여주는 방식, 또, ‘蠅笑蜜蜂’(파리가 꿀벌을 비웃다), ‘水輪의 聲’(물레방아 소리), ‘螺贏의 子’(나나니의 자식)와 같은, 주제를 예시하는 제목이 많다. 이 예시적 제목의 활용에서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근대적인 소설 제목으로서의 진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決斷巖’은 소설의 실재하는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 암시 역할도 하고 있다. 『장학보』 소재의 소설들은 제목을 다는 방식에서도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

근대소설에 와서 우리 소설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의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학보』에 실린 절반 이상의 작품은, 비록 작품 말미의 전지적 해설에서는 현재를 문제 삼고 있으나, 본 서사에서는 막연한 과거 시와 장소성에 머물러 있다. 옛날 혹은 옛적, 혹은 무시간성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농가자」, 「만오」, 「교자설」, 「견송회오」, 「몽각」, 「부인권학」 등이 있으며, 우화의 방식을 쓰고 있는 「승소밀봉」, 「좌절한 영웅」이라는 설화에 기반을 둔 「영웅의 혼」 등 8편이 현재의 구체적인 시공간을 벗어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즉 당대를 작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육정수의 「혈의 영」, 「과라의 자」, 「수륜의 성」, 이승환의 「몽의 형」, 이원성의 「결단암」을 들 수 있다.

막연한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공간 개념과 장소성도 거세되어 있는 반면, 당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훨씬 구체적인 공간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시대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소재들도 등장하고 있다. 「혈의 영」에서는 승례문, 기차 정거장 등이, 「과라의 자」에서는 평양의 연광정, 평양성중학교 등이 「수륜의 성」에서는 함흥의 주남사, 신흥동, 낙민루를 비롯하여, 당시에 새롭게 준공된 함흥의 명물 만세교도 등장하고 있다. 「몽의 형」에서는 종현교당, 남문정 거장 등이 「결단암」에서는 삼각산, 백운대, 결단암 등의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고 있다.

13편 가운데 7편이 과거 혹은 무시간성, 무공간성을 띠고 있으며, 6편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드러내고 있다. 과반의 작품에서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한 것은 극히 제한된 분량 안에서 그 주제를 허구적 방법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쉽게 ‘옛날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작자층이 신학문을 경험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소설에서만큼은 고대소설의 독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고소설에 대한 무의식적 학습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소설적 방식의 답습은 『장학보』에 실린 작품 상당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육정수는 세 편의 작품 모두에서 ‘현재’를 소설 내로 수용하고 있는데, 근대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리즘’에 한 발 다가선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V. 『장학보』 소재 소설의 구조와 언어

1. 소설 구조의 측면

소설의 주제와 내용들이 어떤 형식과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장학보』 소재 작품들 제목에서 ‘꿈(夢)’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의 형』, 『몽각』을 비롯하여 게재불가된 『몽중몽』, 『침상유각』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감지된다. 현실→꿈→현실, 즉 입몽과 각몽의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방식은 설화 『조신몽』에서 시작된 고소설의 전형적인 서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혈의 영』, 『만오』 역시 꿈이 서사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선작 16편 가운데서 5편 이 꿈을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현실세계에서 학문을 소홀히 한 인물이 꿈속에서 그 징벌을 받거나(『몽의 형』), 징벌을 받게 될 상황을 예시함으로써(『몽각』) 학문가로 거듭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오』에서는 꿈을 욕심에 대한 경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 꿈을 활용한 이는 육정수인데, 『혈의 영』에서는 앞의 작품들이

보여준 ‘징벌형’ 꿈과는 달리, 반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이 꿈꾼 이상(독립)과 염원을 담고 있다. 응모자들은 짧은 서사 양식에 허구적 요소를 담기 위한 전략으로서 꿈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들이 익숙했던 고소설의 독서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화를 활용하는 것도 설총의 『화왕계』에서 이어지는 우리 서사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승소밀봉』은 게으른 파리와 부지런한 꿀벌을 소재로 하여 근면의 강조와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우화는 1895년부터 한국에 수용되어 교과서에서도 실리기 시작한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의 한국적 변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우화를 대화 중에 차용하여 우화가 현실과 끊임없이 교섭하도록 한 것은 육정수의 『과라의 자』라고 할 수 있다. 나나니가 배추애벌레를 물어다 ‘날 닳아라’ 소리를 내며 자기의 자식으로 삼고, 나나니의 자식이 된 배추애벌레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나나니가 되어 제 동족을 물어온다는 알레고리는, 반식민지 상태에 떨어진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과 우리 교육을 빼앗겼을 때 당면할 현실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학보』 투고자들 상당수가 이러한 고소설적 관습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넘어 서술자의 해설을 결말에서 직접 노출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13편의 작품 중 6편의 작품 결말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 ① 희라 우리 청년은 이 밀몽과 파리의 일을 김히 생각할지오다 <중략>
부모에 은덕으로 포식난의 훌쩍에 시기를 일치 말고 저 밀몽과 꺾치
즈즈근근히 학문을 연구할지니라(『승소밀봉』)
- ② 슬푸다 우리 청년 동포는 그 형벌을 당히지 말고 근근즈즈히여 추후에
큰 학업을 연구하야 학문가 되기를 바라노라(『몽의 형』)
- ③ 여러분 청년이여 <중략> 우리도 용왕 직전하는 괴운을 길너서 무슴

일을 당하던지 항상 어려운 것을 이기고 우리의 중대한 목적을 성취하게
기쁘지 잠시도 쉬지 안이 헝기로 결단하옵시다(<결단암>)

- ④ 당금 경정시디에 처하여 습천리 널은 짜에 학교는 멧치는 되며 학교는
멧치는 되뇨 이것슨 지정가의 분발치 안이하미오 암전에 흥기치 안이
헝미로다(『견송회오』)

①, ②, ③에서처럼 그 말미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설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나라’, ‘~노라’, ‘~하시다’ 등의 어미를 활용해 직접 당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설 앞에 ①과 ②처럼 ‘희라’, ‘슬프다’와 같은 감정형용사를 배치하여 서술자의 감정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작품 중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끝부분 해설 역시 고소설처럼 시대성과 관련 없는 선형적인 권선징악의 평설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 ④의 경우처럼 현실비판의 단계까지 나간 것은 리얼리즘을 반영하는 근대소설의 관점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학보』 소재의 작품 중에는 이와 달리 서술자가 현저히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육정수의 작품들은 작가 개입이 거의 없다. 등장인물의 대사나 배경 묘사를 통해 작가의 의중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작품 말미에서도 서술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두 나래 툇툇치며 우는 닭소리는 이날 밤 상오 두시 종소리와 섞기여 꼬끼오
맹맹맹맹 꼬끼오 맹맹 꼭꼭(『혈의 영』)

김참봉이 나든 눈물을 씻고 벌떡 일어나면서 「어 그 바람 시원시원」 (『과라의 자』)

물방아는 가는 세월을 앓기여 나태한 누습을 깨우는듯는 황-담졌던 물 쏟아지는 소리는 백옥 같은 흰 물결로 비루한 심장을 씻을 듯시 철-씩 석쇄(『수륜의 성』)

위에서처럼 육정수의 세 작품은 모두 서술자의 해설 없이 묘사로만 끝을 맺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문장은 대사와 의성어로만 끝나고 있다. 근대 소설일수록 서술자는 소설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과도한 서술은 무엇보다 독자의 몫,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설 자리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정수의 결말 시도법은 주목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2. 소설의 언어적 측면

소설은 결국 언어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언어군을 살펴봄으로써 『장학보』 소재의 소설이 갖는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장학보』의 소설들에서는 고소설의 전형적인 문체 ‘-이더라, -하더라’가 편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³³⁾ 이는 일상적인 구어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의 전달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편 모두에서 현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육정수의 작품에서는 ‘-더라’체 문장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³⁴⁾

이러한 고소설적 문체와 달리 『장학보』에서는 이전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언어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어휘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

33) 『만오』: 욕심을 적게 하더라/영웅의 혼.; 일우 몰홀 슈 업더라/『승소밀봉』: 삼동을 편안히 지니더라/『교자설』:중히 녀이더라/『몽의 형』: 지물을 통퓌하얏더라/『몽각』: 학업만 힘을 쓰더라/『결단암』: 눈 쓰기가 어렵더라 등.

34) 대신, 육정수는 현재형 어미 ‘-이라’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노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큰 것대에 쓰인 것이라”.(『혈의 영』.)

개명진보·교육(『농가자』)/잡지·기차·정거장·독립·한반도·국민·승객·자유·실업·평등주의·태극기·서세동점·제국·사방모자·대한혼·장학월보(『혈의 영』)/융희이년·구라파·나폴레옹·비사막·아미리가·와싱턴·티평양·아세아(『영웅의 혼』/동포(『승소밀봉』)/정치학·의학·농업학·공업학·광물학·삼업학·경쟁시대·학도·학교·재정가(『견송회오』)/교육권·공익·우승열패·경쟁시대·진보력·인도·파란·영어·아어·평양성중학교·하학중소리(『과라의자』)/중현교당·정거장·외국·기차·청년·인민·법원·법관(『몽의 형』)/약육강식·우승열패·이십세기·보불전쟁·보로사·법국·독립기상(『수륜의 성』)/상등인종·하등인종(『몽각』)/진보(『결단암』) 등

『장학보』의 작품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화두, ‘우승열패’, ‘약육강식’, ‘20세기’, ‘경쟁시대’, ‘서세동점’ 등이, 그 연장선에 있는 어휘 ‘상등인종’과 ‘하등인종’, ‘개명진보’, ‘진보력’이 등장한다. 근대를 상징하는 ‘기차’, ‘정거장’, ‘승객’, ‘중현교당’, ‘평양성중학교’ 등과 함께 ‘정치학’을 비롯한 다양한 근대 학문의 유형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입헌군주제를 상징하는 ‘제국’, 외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외국명과 외국 인물명에 대한 외래어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 어휘의 수용은 이전 소설과 달리 보다 당 시대와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에서도 전래 속담인, “초년 고성은 은을 주고 산다”(『부인권학』)와 같은 표현도 등장하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유입된 “상천은 스스로 경 도우는 자를 도와시니”(『영웅의 혼』)나, 같은 뜻인 “하늘은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도우시니”(『수륜의 성』), 또 나폴레옹의 “불능이라는 글자는 법국사전에서 찾지 말라”(『수륜의 성』)와 같은 격언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장인 “학문은 국가에 동량ियो 국가에 빗치오 공중의 이익이오”(『견송회오』) “공익상에 발 벗고 나선”·“세상없어도 내 자식은 내가

가르쳐야지”(『과라의 자』)와 같은 표현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소설의 주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근대로의 이행기를 살고 있던 청년 독자들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의 소설란은 순 국문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투고자들은 순우리말, 특히 구어의 가치에 주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① 삭풍에 소리를 날리어 뚝뚝 기차는 정거장에 다다라 반가운 소식을 팔만 이천 방리에 전하는 듯 김빠지는 소리는 쇠쇄쇄 기차문을 열고 나오는 남녀 승객은 제제히 오색 옷을 입고 태극국기를 손에 들어 두르며 ‘제국만세’를 세계가 뒤집히는 듯 소리를 지르는데 <중략> 총총이 쓴 깃발은 바람에 펄펄 훑날리고(『혈의 영』)

② 종현교당에 하오 칠시 반 종소리는 썩썩 치고 남문 덩거장에 괴차의 바퀴 소리는 쫄쫄 굴네 오는지라(『몽의 형』)

③ 건너 뿔 씨에 힘쓰기 죠홀 곳을 갈회여 스고 건너편에 발뚧치기 조흔 곳을 정흔 후에 남은 마음에 두지도 말고 눈으로 보지도 말고 다만 건너편에 발뚧칠 터에다 눈을 쏘아 보고 이편에 서서 전신에 괴운을 모은 후에 정신 츠리고 삼뚧 건너 뛰면 못 뿔리치 업슬 터이니 여러분 우리 결단호고 건너 뛰여 뵙시다(『결단암』)

육정수는 앞서 보았듯이 소설의 모든 결말을 묘사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서두 역시 『혈의영』과 『과라의 자』는 묘사로, 『수륜의 성』은 대화로 시작하고 있다. 그만큼 고소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서술의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구어체에 집중할 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결말에서 “송이송이, 툭툭, 땡땡땡땡, 꼬끼오, 췌췌, 쿵, 칠씩”과 같은 다채로운 우리말 부사어를 살려냈다. 결말이 아니더라도 ①에서 보듯, ‘뚝뚝’, ‘쇠쇄쇄’, ‘펄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어체에 대한 고민은 특히 순 우리말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으로, 이는 다시 묘사의 구체성으로 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처럼 이승환의 소설에서도 ‘뽕뽕’, ‘뽕뽕’과 순 우리말 의성어와 의태어가 근대 문물에 대한 묘사와 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문장이 줄거리의 설명이나 진행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화 위주의 문장형식에다 감각적 영상 위주의 구체성을 띤 묘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가 가능해진 데는 고소설의 서사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양식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서술시간 안에 많은 서사시간을 담아내야 했던 이전 소설에서는 이러한 묘사와 장면 제시 방법이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장학보』 13편의 소설 중 7편은 짧은 서술 분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 서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자」(수년), 「만오」(수일), 「영웅의 혼」(수백년), 「부인권학」(10년), 「승소밀봉」(봄~가을), 「교자설」(16년), 「전송회오」(10년)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소설들은 보고와 요약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머지 6편은 모두 이야기된 시간이 하루 이내이다. 특히 대화와 묘사를 주로 하는 육정수의 소설은 서술시간과 서사시간이 일치할 정도로 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른바 말하기(telling)에서 보여주기(showing)에 의한 장면적 묘사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소설에 와서 보여주기 즉 제시의 방법이 늘어나면서 서술은 줄어들고 대신 ‘묘사’와 함께 ‘대화’도 늘어나게 된다.³⁵⁾ 이는 당시의 응모자들에게 ‘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에는 이러한 일련의 고민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13편의 작품 중에 「농가자」, 「만오」, 「승소밀봉」, 「전송회오」, 「부인권학」, 「몽의 형」, 「몽각」 등 7편의 작품이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대화

35)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93, p.239.

인용 지표인 ‘왈’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적 시점과 결부하여 ‘탄식하여 왈’처럼 서술자의 심리를 함께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왈’에 매개된 대화는 서술자의 담론에 감염되어 대화 주체의 개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구어가 갖는 생동감도 잃게 된다.

을덕이 이에 공손한 말도 고희야 왈 룡사라 흐는 거슨 씨에 밧갈고 힘써
다사리면 화곡을 만히 엇고 씨를 어긔여 다시리지 못흐면 비록 량전 옥도라도
쓸곳이 업사오니 형장은 김히 심각흐시웁소서 하니 갑덕이 이말 듯고 황연 경성
하여 일노 좃츠 룡업을 을덕과 갓치 힘써 가사를 잘 다시럿다하니(『농가자』)

서술자의 말과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내세운 동생 을덕의 말은 사실상 구분이 없다. 서술자와 서술 대상 간의 서술적 간격이 사라짐으로써 인물의 말은 자기 목소리보다 서술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따라서 서술 지문에서 인물의 대사를 구분해내는 것, 역시 근대소설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에서 가장 먼저 서술과 대화를 구분한 것은 육정수다. 그는 2월호 『혈의 영』 첫 작품부터 대화를 분리하고 괄호 안에 발화 주체를 밝히는 방식을 썼다. 제한된 지면에서도 대화 부분이 끝난 자리를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작품 『수륜의 성』에 오면 각각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표출하는 역할을 넘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 (김) 시대는 동류수와 같이 흐르는데 지금 현상은 기막힐 뿐일세
(리) 불능이라는 글자는 범국자전에 찾지 말라는 말을 보게. 좋은 기회가 동류수 같이 흘러가며 우리 취하기를 기다리나니 교육으로 그 취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은 우리 직분이 아닌가(『수륜의 성』)

이 작품에 와서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만 가지고서도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김참봉과 이를 안심시키고, 희망을 역설하는 리일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화제시 방법은 일본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수용은 등장인물의 개성적 발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성격화의 가능성을 높이고,³⁶⁾ 소설의 언어(대화)가 구어체에 훨씬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 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은 비단 옥정수만 한 것이 아니었다. 『결단암』과 『영웅의 혼』은 발화자 음성을 소괄호 안에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옥석이 금석을 도라보고 몰하되 (금석이 니가 지금 팔힘이 다하여 썩어진 목난간을 의뢰할 슈 업시니 찌러져 죽고몰가……) 금석 (형님 형님의 진력됨은 금석이가 받을 잡아 무게를 더하였시니 금석이가 찌러지면 형님은 힘을 회복하여 살기를 엿을 것이오) 옥석 (응-찌러지면 갖치……)라 하고 (『영웅의 혼』)

여러 스릅의 말이 분순하다 (아-가도 오도 안니하고 여기셔 히를 질 모양이오) (하-결단 바위 결단바위 흐기에 니는 엿던 것을 가지고 그리흐나 흐엿더니 춤 어렵구려) (그럿기에 결단바위지 쉬울 것 갖흐면 어려울 것 무엇 이소) (『결단암』)

행갈이를 하지 않아 읽기에 불편하지만, 장광설에서 벗어나 있고, ‘~오, ~구려, ~소, ~르가’ 등의 어미를 사용하여 훨씬 구어체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화의 구분을 위해 활용된 문장부호는 주관적인 작가 개입의 요소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만큼 대화를 대화답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고소설의 간접화법적 요소가 근대소설의 직접화법적 서술로 이행해오는 과정을 『장학보』 소재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권영민, 『개화기 소설의 국문체와 ‘ㄴ다’형 문체』, 『새국어생활』 7권 2호, 1997, p.148.

무엇보다 『장학보』의 투고자들이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이러한 문장부호를 고민했다는 사실은 소설이 더 이상 율문체로 소리 내어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근대적 소설관에 눈을 떠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VI. 맺음말

『장학보』는 최초 현상모집을 실시한 잡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선협적 평가에 비해 이 매체의 성격, 실려 있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잡지와 소재 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잡지가 우리 소설사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장학보』가 계몽기 실력양성론에 바탕을 둔 박태서 등의 지식인에 주도되었으며 그들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삼은 ‘우승열패’ 논리에 입각하여 현상모집이 도입되었음을 지적했다. 응모자들의 면면을 분석하여 이 잡지가 단순히 학생들만의 잡지가 청년 일반들의 것이었고, 따라서 이 『장학보』에 실린 작품은 당시 청년들의 소설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가늠해보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장학보』에 실린 소설들은 주제에서 비록 교육에 편중된 측면이 있지만 직간접으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학보』에 실린 소설에는 고소설적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작품 말미에 전지적 작가의 논평적 개입, 더러체의 편재화, 대화 인용 지표인 ‘왈’의 사용, 꿈의 활용, 과도한 요약서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분량 제한이라는 불가피한 면에서 선택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작가 계층이 근대적 교

육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소설의 독자로서는 고전(한문)소설에 보다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분량이나 제재에서 오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근대소설을 향한 고민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직간접적으로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3편 중 절반의 작품에서 시대상을 반영한 어휘나 문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작품들에서는 묘사의 확대, 지문과 대화의 구분 등에서도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시기의 다른 잡지들과 달리 순 국문체를 고집함으로써 응모자로 하여금 우리말 의성어와 의태어에 눈뜨게 하였고, 그만큼 묘사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장학보』는 국한문 혼용의 언문 일치를 넘어 순 국문 구어체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응모자들 중에서도 특히 육정수는 제한된 주제와 분량 가운데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선보여 당시 단형서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회나 되는 입상 실적, 육정수 작품에 내렸던 “말이 새롭고 문체가 새로워 가히 신인의 새로운 수법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평에 값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학보』가 배출한 주요 인물로 함께 언급되는 심우섭의 작품 『몽각』은 옛적을 배경으로, 학문에 게으른 자(복남)와 성실한 자(수동), 그 연장선에 있는 상등 및 하등 인종사회의 구분 등 고소설의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 -더라체의 고집, ‘갈아 되’와 ‘왈’의 대화 지표 사용, 결말에서의 논평 등 여전히 구소설적 요소를 강하고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가 된다.

또한, 『장학보』는 전문적인 심사평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당 시대상(리얼리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만오』라는 작품에 응모작 중 유일하게 1등상을 준 것도 심사자들의 소설관을 다소 의심스럽게 한다. 하지만, 구어체의 정착기에 자모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 근대소설 도입

기에 새로운 ‘소설체’에 대한 요구는 우리 소설이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데 그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학보』가 갖는 가치 중의 하나는 친일적 분위기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식민지 상황에 놓인 조선의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 그만큼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기표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천년 고국, 자유, 독립, 태극기, 삼천리강토, 팔만 이천방리, 대한 훈”(『혈의 영』), 단기 사천년의 독립 위엄(『과라의 자』), “백두산 나린 맥은 용흥지기 억만년 독립기상을 그린 듯”(『수륜의 성』), “이천만인의 동포 형제 영웅을 산출하여 우주 간에 영웅국 설립”(『영웅의 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것을 이기고 우리의 ‘중대한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결단하자”(『결단암』)는 표현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장학보』에는 고소설적 요소와 근대소설적 요소들이 착종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 근대소설이 일방적인 외래의 영향으로만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잃게 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제한된 주제와 분량이었지만, 현상모집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소설이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어 치열한 고민을 한 흔적을 『장학보』는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장학월보사, 『장학보』, 1월호~5월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해조신문』, 『관보』.

2. 논문 및 단행본

권영민, 『개화기 소설의 국문체와 ‘ㄴ다’형 문체』, 『새국어생활』 7권 2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997.

김영민,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자료 연구』, 『현대소설연구』 1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pp.103-124.

남상권, 『『직녀성』 연구』, 『우리말 글』, Vol.39, 우리말글학회, 2007, pp.309-338.

박찬승, 『한국 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93.

임기현, 『근대계몽기 작가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Vol.51, 2015, pp.361-391.

정영진, 『현상 단편소설 모집의 기원 장학보』,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pp.89-117.

조경덕, 『초우당주인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Vol.41, 우리어문학회, 2011.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1』, 문학과지성사, 2012.

주종연, 『한국 근대 단편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1.

Abstract

A novel study in the 『Janghakbo』

Im, Gi-hyeon

The 『Janghakbo』 started in 1908 and it is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it has recruited a short novel. I have analyzed the role of this magazine in the history of our literature based on the nature of this magazine through a careful analysis of the magazine.

The works of this magazine are mixed with modern fictional elements, which are old-fashioned elements. Classical novel factors include the point of view of the writer, narrator's comment, and the description of the excessive abstract method. New novel elements include specific time and space backgrounds, use of new vocabulary to reflect the times, enlargement of descrip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arration and dialogue. Above all, this novel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colloquialization of Korean novels. Also, all novels do not contain the character of pro-Japanese. It is also the performance of this magazine that brought up the representative writer, Yuk Jeong-su of the enlightenment period.

Balanced Enlightenment In order to describe the history of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reveal the collective existence of Enlightenment literature by escaping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masterpieces of existing writers. Therefore,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Janghakbo』.

Key Word : Enlightenment, Janghakbo, Recruitment, describe, language, narrator's comment, Colloquial

임기현

소속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초빙교수

전자우편 : 26ghl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